

# 민사사건의 발생건수를 통해 본 성남시의 지역적 특성

남영우(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namyw@korea.ac.kr)

조혜진(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강수정(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cryst00@freechal.com)

범죄사건에 관한 선행연구는 범죄의 발생형태 또는 예측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민사사건의 유형별 분포패턴을 고찰하고 발생패턴과 예측은 물론 지역적 특성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성남시를 사례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성남시가 중산층이 사는 신도시와 기존에 존재한 구도시가 동시에 분포해 여러 계층의 주민구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상관분석을 적용하여 설명요인을 선정한 후, 회귀분석을 통해 모형을 추정하였다. 또한 추정된 모형을 바탕으로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액사건은 원고와 피고의 분포가 확연하게 다르다. 원고발생지역은 신도시와 구도시의 중심지로, 특히 서현동·야탑동과 금융계열 사업체수가 많은 태평동이었다. 원고가 발생하는 지역은 금융계열 사업체수와 상관성이 높았으며, 피고지역은 사업체수·인구수와 상관성이 높았다. 특히 소액사건의 원고 발생지역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회귀분석 결과 금융계열 사업체수였다.

2) 단독사건은 합의사건과 소액사건의 중간적 패턴을 보였다. 원고와 피고발생지역 모두 구도시와 신도시에서 고르게 나타났으며, 재산세와 사업체수·인구수와 상관성을 보여 합의사건과 소액사건의 중간적 패턴을 나타내었다. 회귀분석 결과도 중간적 성격을 가졌는데, 원고발생지역은 인구수, 금융계열 사업체수, 재산세로 설명될 수 있었고, 피고발생지역은 사업체수와 인구수로 설명될 수 있었다.

3) 합의사건은 원고 및 피고 모두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곳에서 나타났다. 신도시의 중심지나 구도시의 공단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결과 발생요인은 재산세로 설명되었다. 이로 보아 합의사건은 높은 소득수준을 보이는 지역으로 추론되며, 그것은 부유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공장이나 공단 등의 회사가 될 수도 있다.

4) 모든 사건의 원고와 피고발생지역을 살펴보면, 성남시에서 원고가 많이 분포하는 지역은 금융계열 사업체수가 많거나 부유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피고가 많이 분포하는 지역은 인구나 사업체수가 많거나 저급주택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성남시를 살펴보면, 원고발생지역은 구도시 중심지인 태평동과 신도시의 서현동·야탑동 등으로 볼 수 있고, 피고발생지역은 공단을 포함한 구도시의 대다수 지역과 인구가 많은 야탑동·정자동 등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민사사건의 발생건수를 분석지표로 지역성을 고찰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발생지역의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경기도 성남시만을 대상으로 한 국지적 연구이지만 범위를 넓혀 광역적 수준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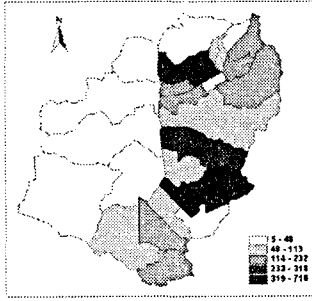


그림 1. 소액원고 발생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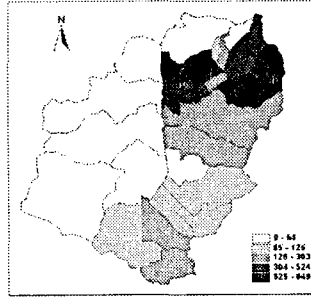


그림 2. 소액피고 발생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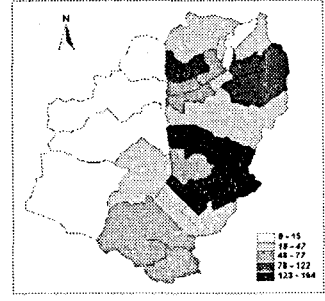


그림 3. 단독원고 발생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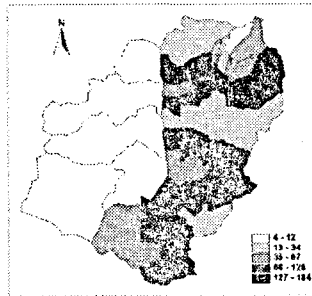


그림 4. 단독피고 발생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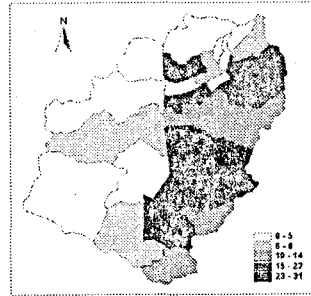


그림 5. 합의원고 발생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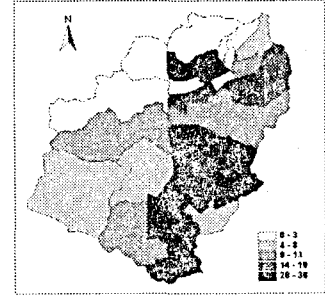


그림 6. 합의피고 발생패턴

본 연구의 한계로는 제한된 요인만 가지고 민사사건을 분석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최근 많이 이용되는 형사사건의 발생건수 자료와 함께 보완한다면 더욱 설명력이 높은 지역연구가 될 것이다.